"자신의 학습방법 체크, 해결책 스스로 강구"

■ 부모의 역할 ③

공부방법을 체크하자

교육학에서 강조하는 바람직한 교육방법은 바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란 학생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정하여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학습방법이다. 자신에게 맞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학습전략을 다양하게 연구하여 자신에게 맞게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아야 한다. 이어서 평가하는 과정까지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스스로의 학습이 외부의 자극으로 되는 교육보다 효과적인 배움이 되는 것이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 누구나 공부를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공부에 있어 자신에게 어떤 방법이 가장 필요한지 판단해 보자. 아래 질문에서 몇 개에 체크가 되는지 테스트 해보자.

공부를 잘 하고 싶다면 우등생 마인드를 갖고 할 필요가 있다. 말투도 우등생의 모습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뉴욕타임스〉

- 스스로 머리가 나빠서 공부해야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 분명히 시간을 소비해가면 충분히 공부했는데 시험지만 보면 도통 생각이 나지 않는가?
- 시험 본 후 분명히 A를 받았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결과가 나오면 점수가 좋지 않은가?
- 한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 서점에서 많은 책을 구입해 두었다. 프린스턴 리뷰, 배론스, 캐플란 등등 여러 개의 참고서로 공부한다.
-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졸기 일쑤다.
-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이해를 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절대 복습을 하지 않는다.
- 시험 전에 딱 닥쳐서 공부한다.
- 모르는 문제는 학교 선생님에게 일일이 묻기가 번거로워 그냥 넘어간다.
- 수업시간에는 주로 받아 적는 것이 많아 질문을 한 적이 없다.
- 어려운 공부를 하면 머리가 아프다.
- 나는 수학의 기초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공부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다.
- 계획을 세워도 제대로 실천해 본 적이 없다.
- 시험 전에 A+가 나오게 죽도록 공부한 기억이 없다.
-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오히려 화가 나고 공부가 하기 싫다.
- 두통, 변비, 불면증, 아토피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 학원에 안 다녀서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한다.
- 성적이 절대 안 오른다.
- 단 한 번도 시험 전에 만족스럽게 공부한 적이 없다.
- 매년 계획을 세우지만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다.
- 학교 끝나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한 적이 없다.
-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다.
- 내 성적이 나빠서 대학가기는 틀렸다.
- 공부는 무작정 외우는 것이다.
- 공부할 때 채팅도 하고 음악도 들으며 한다.
- 매일 피곤하고 공부는 정말 하기 싫다
- 공부 중에 SAT는 도대체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공부시간·수업태도·자세 종합적 점검
자녀들의 잠재력·인생목표 제한 금물
어릴 때부터 독서 과외습관 길러줘야

자 위의 질문에서 여러 개에 체크가 되었다면 이제 심각하게 공부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공부를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결책 중에 과연 어떤 방법으로 취약점을 고쳐나가야 할지 알려는 노력을 하기 바란다.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할지, 암기력을 증진시켜야 할지, 모르는 것에 대한 질문을 훈련해야 할지, 자신에게 맞는 계획과 목표를 세워야 하는지, 아니면 자신이 빠져있는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법을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연구해 봐야 한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무슨 진료를 받을지를 아는 것처럼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이 되어야 그 해결책을 쓸 수 있다. 따라서 위에 열거한 것들을 체크해 보고 자신의 취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일단 진단해 보자.

만약 공부를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과감하게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를 마치 공부를 가장 잘하는 학생인양 착각해 보자. 마음도 자세도 말투도 우등생의 모습으로 바꿔야 한다. 우등생처럼 행동하고, 우등생처럼 생각하고, 우등생처럼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 우등생이 된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된 방법을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지금, 자녀를 위해 학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자녀를 위해 부모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 부모가 바뀌어야 자녀도 바뀐다. 부모들이 깨어나서 자녀와 함께 달려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위해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부모의 생각이 자녀의 인생을 바꾼다. 부모가 자녀를 UC를 목표로 제한을 둔다면 자녀의 최고점은 바로 거기가 된다.

SAT 준비도 중학교 때부터 해야 한다고 하면 "왜 SAT를 저학년 때부터 준비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부모들, 대학 준비는 11학년 때부터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는 어머니들과 옳고 그름을 논쟁하고 싶지는 않다.

아이들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그들에게 적당한 자극과 함께 준비를 해 나가면 기대 이상의 큰 결과가 있게 됨을 알았으면 좋겠다. 자녀에게 맞는 여러 가지 과외활동을 찾아내 주고, 끝까지 그들을 서포트해 주는 부모가 있을 때 자녀의 꿈을 이루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기량이 최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학년인 자녀들이 있다면 부지런히 책을 읽히고 학교 공부 외에 고등학교에 가서 치를 시험들에 관한 능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 일찍부터 이런 능력과 습관을 길러 주어야 고등학교에 가서 GPA도 상위로 유지하면서 SAT I, SAT II, AP 시험들도 높은 스코어를 받아낼 수 있다.

하버드와 뉴잉글랜드 음대에 입학해 생물학과 첼로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어느 유명한 분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다. 이 분은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생물학자와 첼로 연주자의 어느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차로 40분 걸리는 잉글랜드와 하버드를 오가며 바쁘게 산다고 하면서 "하루 평균 4시간 정도밖에 자질 못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미리 일정을 짜서 생활하는 훈련을 시켜주신 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일정을 체크하고 시간단위로 정밀하게 연주와 학과 공부 스케줄을 짜놓고 이에 맞춰서 하루를 시간을 쪼개 씁니다"라고 말했다.

엄마가 어릴 적부터 길러낸 습관이 몸에 배어서 오전에는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실험과 리포트 작성으로, 첼로는 자정 무렵부터 4시간가량 한다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어느 유명한 신부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하루에 8만6,400달러씩을 선물 받고 있다고 그것을 현명하게 쓰면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8만6,400달러를 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1분을 1달러씩 계산해서 하루 24시간을 계산하면 8만6,400달러가 되는 것이니 귀하게 쪼개 쓰라는 명언이셨다.

내 자녀의 교육을 아직 마이너인 아이들에게만 맡겨서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칼럼니스트는 아이들과 발을 묶고 함께 뛰는 게임처럼 엄마가 그들과 함께 달려줘야 한다고 말한다. 호흡을 잘 맞춰 꾸준히 뛰어준다면 장래에 아주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임을 지금 우리 부모들은 하고 있는 중이다.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마음의 선택은 결국 자녀에게 달려 있다.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한다. 옆에서 잔소리만 하라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춘기에 있다면 전문가를 연결시켜 줘라.

그리고 성적 향상을 위해, 최고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자녀의 공부 방법을 점검해야 한다. 첫째, 공부습관 진단 후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자신이 그 계획을 잘 따라했는지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있다면, 그들이 과연 중요한 시기에 공부를 놓치고 평생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반문해 보라. 그래서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공부! 하지 않아도 된다.

제니 김
〈존스 홉킨스대학 교육학석사〉
어드미션 매스터즈〉
1-855-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